제52회 호남예술제 오늘 개막

예술 꿈나무 힘찬 날갯짓

초등부 성악 시작 6월말 까지 음악·미술 등 5개 부문 경연

국회의장상 신설…5월 22일 청소년 그룹사운드 페스티벌

예술꿈나무들의 등용문인 제52회 호남예술제가 23일 광주시민회관에서 열리는 초등부 성악 부문 경연을 시작으로 두 달 이상 계속된다.

'예술가의 꿈을 펼쳐라.'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인 제 52회 호남예술제가 23일 화려한 막을 올린다.

이날 오전 광주시민회관에서 열리는 초등부(1·2학년)성악 부문을 시작으로 열띤 경연에 들어가는 호남예술제는 오는 6월까지 약 두달간 계속된다.

특히 지난 46회 대회 때부터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여해온 호남예술제는 올해 국회의장상을 신설, 대회의 권위를 한층 높였으며 명실상부한 전국 경연의 면모를 갖췄다.

경연은 음악(성악·피아노·바이올린·기악·현악·관악·합창), 무용(현대무용·발레·한국창작무용·한국전통무용), 국악(기악·성악·가야금·타악), 작문(시·산문), 미술 등 크게 5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지난해 신설한 논술과 작문·미술은 경연 방식을 변경했다.

경연장소는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호남신학대, 광주시민회관 이외에 광주대학교를 추가했다.

미술과 작문은 공모와 실기 대회를 병행해 실시한다. 작품 공모는 오는 5월1일~19일까지 진행하며 5월 11일에는 금호패밀리랜드에서 현장 예선 실기대회(참가접수 5월9일까지)를 갖는다.

대학 입시에서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논술 부문의 경우 역시 5월 1~19일 공모를 실시하며 6월 중순께 본선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첫해 행사에서 1천여명이 참여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았던 유치부의 '새싹 그리기 축제'는 오는 6월 1일~19일까지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개막 경연으로 많은 인기를 모았던 '호남예술제 청소년 그룹사운드 페스티벌'은 올해부터 합주·합창제와 같은 날(5월 22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진행, 축제 분위기를 돋울 예정이다.

자세한 경연 일정은 호남예술제 홈페이지(http : //www.kwangju.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부문의 입상자는 경연 종료 후 호남예술제 홈페이지에 발표하며 다음날 광주일보 문화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광주일보사의 전신인 전남일보사가 지난 1956년부터 개최해온 호남예술제는 어린 꿈나무들의 예술적 소양을 일구는 텃밭 역할을 해왔으며 지금까지 53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 예술가로의 꿈을 키워왔다.

또 호남예술제는 김남윤(음악), 김선희(무용) 등 현재 국내 예술계 전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상급 예술가들과 지도자들을 배출한 산실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젊은 음악가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피아노 부문 최고상 수상자로 제21회 에피날 콩쿠르에서 우승한 임호열씨, 바이올린 부문 최고상 수상자로 제8회 이슬람 페트렐라 국제콩쿠르 우승한 김아름씨 등이 대표적이다. 문의 062-220-054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무등산 정기 받은 의혼들을 부른다

광주시립국극단 25~26일 창극 '의병장 고경명' 공연

'창극으로 만나는 구국 선열의 삶'

광주시립국극단(단장 송순섭)이 제34회 정기공연 작품으로 창극 '의병장 고경명-자미탄의 눈물'을 무대에 올린다. 25~26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모두 2막으로 구성된 이번 창극은 무등산과 가사문화권을 배경으로 임진왜란 당시 초개처럼 목숨을 버렸던 7천여 호남 의병들의 기개를 보여주는 작품.

특히 동학혁명을 거쳐 광주학생운동, 5월 민주항쟁으로 면면히 이어져 오는 '의향(義鄕)'의 뿌리를 알게 해주는 작품이다.

주인공 고경명 역의 장영한씨를 비롯, 김원형(김천일 장군 역), 심명섭(송강 정철 역), 최재일(김덕령 역), 박명언(김인후 역)씨 등을 포함 시립국극단원 80여명이 출연한다.

연출은 김영만씨가 맡았으며 박종선(음악), 정철호(작창), 정명자(안무)씨 등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의병장 고경명'은 오는 6월 평양에서 열리는 6·15 공동선언 남북 평화 축제 참가를 추진중이며 10월께 서울에서도 공연할 예정이다.

티켓 가격 3만원~1만원. 문의 062-510-926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건반을 사랑하는 사람들' 정기연주회

오늘부터 27일까지 드맹아트홀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들의 모임인 건반을 사랑하는 사람들(대표 이태은 전남대 교수·사진) 제12회 정기연주회가 23~27일까지 드맹아트홀에서 열린다.

지난 2001년 베토벤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매 연주회마다 특정 작곡가의 음악을 집중적으로 연주해온 회원들은 이번 공연에서는 멘델스존과 슈만의 음악을 들려준다.

연주자는 문마리아·최선희·이은정·정현미·이주희·강서정·임리라·이상록·조현영·박수미·홍보원·황성순씨 등이며 연주곡목은 슈만의 '환상곡 작품 17' '아라베스크 작품 18' 멘델스존의 '론도 카프리치오소 14' 등이다.

오는 5월 12일에는 서울 이원문화센터에서도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문의 062-234-372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천년학' 날지 못하는가

지난해 7월 임권택 감독은 메가폰 대신 피켓을 든 채 1인 시위에 나섰다. '천년학'의 배우들과 스텝들을 진두지휘해야할 그가 촬영장을 비운 것이다. '천년학'은 한때 메인투자자가 없어 크랭크 인이 늦어져 감독에게는 1분1초가 아까운, 공을 들여도 부족한 영화였다.

그런데도 노(老)감독이 촬영스케줄을 핑크내고 시위현장으로 달려간 것은 스크린 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때문이었다. 정부가 지난해 1월 한·미 FTA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스크린 쿼터를 종전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한 방침에 항의를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100번째 작품을 찍는 감독으로 살아남기까지 스크린 쿼터의 힘이 컸다. 만약 이 보호막이 없어지면 한국영화는 '메이드인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 먹혀 버리게 될 것"이라는 그의 목소리는 '일부 영화인들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주장에 밀려 묻혀 버렸다.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요즘 노감독이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여기저기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한국 영화점유율이 20%대로 떨어진 데 이어, 최근 한·미 FTA타결로 스크린쿼터가 영원히 73일로 묶여 한국영화들이 고전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작품이 '천년학'이다. 기나긴 산고 끝에 세상에 나온 보람도 없이 대부분의 극장에서 사라지거나 교차상영(다른 영화와 번갈아 상영개봉)되는 신세로 전락했다. 개봉(12일) 이전부터 한국영화 100만 명 관객신화를 쓴 '서편제'에 버금가는 수작이라는 평론가들의 찬사가 무색할 정도다.

지난 주말 광주의 한 변두리 극장에서 만난 '천년학'은 개봉 일주일 만에 이른 아침과 심야 시간에만 상영되는, 부지런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귀한'(?)영화였다. 개봉 첫주 박스 오피스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면 바로 간판을 내리거나 스크린 수를 줄이는 냉엄한 시장의 논리에 밀린 것이다.

차가운 스크린 밖 세상과 달리 영화는 거장의 힘을 확인시켜주기에 충분했다. 학이 날아오르는 형상의 해안가 마을을 배경으로 끊어질 듯 이어지는 주인공 동호와 송화의 인연은 수려한 영상과 어우러져 깊은 울림을 주었다.

평생을 그리워하면서도 함께 있을 수 없는 주인공들의 안타까운 운명은 '사랑=게임'인 할리우드 인스턴트 멜로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한국적인 정서를 생생히 보여준다.

썰렁한 객석에 앉아 영화를 보면서 우리의 삶과 한을 아름다운 영상으로 담아낸 거장의 작품이 외면받는 현실이 아이러니 하다 못해 씁쓸하게 느껴졌다.

바닷물 길을 막아버린 선학동 포구의 방조제 때문에 학들이 찾지 않는 폐허로 변한 영화 속 한 장면은 머지않은 한국영화의 미래일지 모른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movies

인기영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Happy Time

영화안내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런던약국사거리 ♡예매1544-0600

M관	극락도 살인사건 (15세)	최고급관
2관	동갑내기 과외하기 : 레슨2 (12세)	
3관	향수-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15세) / 우아한 세계 (15세)	
4관	선샤인 (15세)	
5관	리핑-10개의 재앙 (12세)	
6관	고스트 라이더 (15세) / 천년학 (12세) / 고스트 라이더 (15세)	
7관	300 (18세) / 이장과 군수 (12세)	
8관	눈부신 날에 (15세)	
9관	극락도 살인사건 (15세)	

Megatizen Day 매주 월~ 금 영화 4,000원 관람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무료팝콘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주차장이 편한 극장

엔 터 시네마

충장로 5가 ☎ 228-2700

1관	동갑내기 과외하기 (12세)
2관	이장과 군수 (15세)
3관	우아한 세계 (15세)
4관	마하2.6 (15세)
5관	극락도 살인사건 (15세)
6관	300 (18세)
7관	고스트 라이더 (15세)

금,토(2일간) 심야상영
* 자주식 동시 주차장 200대 <3시간 무료> *

* 매주 금·토 심야 2,000원 할인 *

향토사랑 영화사랑 * 예매:www.joycbc.com/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하남점

상무점(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무역회관뒷편)

1관	눈부신 날에 (15세)
2관	〈내 부수리 중〉
3관	동갑내기 과외하기 레슨2 (12세) / 이장과 군수 (12세)
4관	동갑내기 과외하기 레슨2 (12세)
5관	로빈슨 가족 (더빙/전체) / 300 (18세)
6관	선샤인 (15세)
7관	리핑 10개의 재앙 (15세)
8관	천년학 (12세) / 우아한 세계 (15세)
9관	고스트 라이더 (15세)
10관	극락도 살인사건 (15세)

* 호남 최대 주차장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콜롬버스 하남점(10개관) 절찬리 상영중

1588-7941 상담원연결 방법 →(1번 or 2번) → 0번

즐거움이 가득 * www.mc12.co.kr/ 1588-9101

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

1관	이장과 군수 (15세) / 천년학 (15세)
2관	선샤인 (15세)
3관	눈부신 날에 (15세)
4관	동갑내기 과외하기 2 (15세)
5관	극락도살인사건 (15세)
6관	리핑 (15세)
7관	우아한세계 (12세) / 300 (18세)
8관	고스트 라이더 (15세)
9관	굿셰퍼드 (18세)

* 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 탑클래스 회원만을 위한 전용창구 마련
* 전화예약 가능
*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